

# 한국임업의 과제

- 미래목과 임업엘리트 관리 -

마 상 규 / 임업기계훈련원장

## 1. 한국산림과 임업의 방향

우리 산림과 임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서부터 이 험난한 길을 찾아나가야 할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산림녹화라는 기적과 같은 일을하여 세계인들이 우러러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혹자는 연탄과 자연의복원력 때문이라 할지 모르나 강력한 지도자의 지도철학과 관계종사자의 사명감이 합치어진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나간 일이지만 산림녹화 성공과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일찍이 목재생산을 할 수 있는 산림자원화와 임업경영 합리화를 보다 이른 시기에 추진을 하였다면 산림청을 없앤다는 치욕적인 말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금 늦은감은 있으나 우리는 이제 산림과 임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시기에 와있다. 여기에 제시된 미래목의 선발과 이를 육성 관리할 임업엘리트를 양성 관리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취지 때문이다.

즉, 한국산림의 희망을 미래목에 기대하고 한국임업의 꿈은 임업엘리트에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미래목의 선발과 관리

흔히들 우리 산림은 쓸모없는 잡목으로

덮혀져 있다고 한다. 활엽수는 무조건 잡목이고 소나무는 구부러진 형태로 자라므로 그렇게 말들을 하는가 보다. 분명히 이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숲을 제대로 가꾸지 않고 자연상태로 방치해두면 구부러 자란 놈, 폭목으로 자란 놈, 기울어 지고 쌍줄기로 자란 놈들등 천태만상일 수 밖에 없다. 인간 사회라고 다를 수 없다.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쓸모없는 군상만 늘게 마련이다. 그러나 숲속에 들어가 관찰을하면 곧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많다. 영재를 선발하여 영재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이러한 우수 개체들이다.

어린 숲은 적게는 3000본, 많이는 수만본이 자라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무는 ha당 수백본 내외에 불과하므로 일찍부터 큰 기둥감이 될 소질이 있는 나무가 수백본이 자라고 있다면 이 숲은 우량한 숲으로 가치가 있게된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필요로 하고 있다. 비록 천연림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곧고 건강하게 자라는 나무들이 최소한 수백본 있으므로 이들이 계속하여 곧고, 굵고 건강하게 자라 대경우량재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우량한 숲이되기 마련이다.

아무리 불량한 숲이라고 하더라도 서너본중에서 가장 잘 생긴 놈을 골라 키우고

다음 세대에 보다 고가재를 생산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면 된다.

여기서 끈고 건강한 우량한 미래목 감으로 명명을 하고 마치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과 같이 가꾸어주면 분명히 우리의 숲은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숲속에 불량한 개체들이 많이 있다고하여 이를 베고 새로이 조림을 한다면 시간적으로 손실이고 갱신지가 반드시 성공된 조림지가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만큼 돈이 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ha당 본수는 400본 내외란 점과 비록 현재는 기울어 자라더라도 생육환경을 조절해주면 점점곧게 자란다는 지식을 새삼 기억해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산림을 질적으로 우수하게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의 임업도 저질 소경재 생산에서 고급질의 대경우량재 생산 임업으로 전환을 시키어 임업의 경제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높이고 동시에 연관 목재공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 목적과 방법을 개선시켜 주어야 한다.

미래목의 선발시기는 우량목으로 판별이 가능한 시점으로 임업엘리트들에 의해 선발이 된다. 미래목으로 선발이 되면 충분한 생육공간을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미래목 주위의 2m 이내에는 경제목이 없도록 하고 수간을 보호하고 있는 한층수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

미래목의 흉고직경이 6 ~ 14 cm 자랐을 때는 가지치기를 하여서 옹이가 없는 고급 우량재로 직경생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흉고직경이 이 이상이 됐을시 특수 기등재로 이용하지 않는한 가지치기의 경제적 가치가 없게된다. 활엽수의 경

우는 가능한 죽은 가지에 한하여 가지치기를 하는것이 미래목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다.

간벌지의 미래목은 작업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어떤 표시를 하여 주는 것이 유리하다. 간벌지에서 미래목을 표시하지 않고 본수비율 또는 재적비율로 간벌량을 제시할 경우 미래목감을 간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통상 목상의 경우는 숲의 미래형질 보다는 목전의 이익을 우선할 수 밖에 없으므로 목상에게 작업이 위탁된 사유림 간벌지의 경우 미래목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숲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3. 미래목과 임업엘리트와의 관계

숲을 가꾸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숲속에는 각종 동식물이 기후 환경에 적응하여 자라고 있으므로 동식물에 대한 지식, 토양 기후등 입지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에 대한 판별력, 나무생장에 대한 지식등 다양한 지식 또한 경제적인 작업관리와 노무관리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작업기술의 숙달과 경험등이 있는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숲은 한번 잘못 관리하면 그 영향은 50년간 계속된다. 따라서 숲을 관리하는 인력은 지식과 기술이 우수한 임업엘리트라야 한다. 임업엘리트라는 것은 숲속의 미래목과 같이 우수한 인재를 뜻한다.

숲을 관리하기 위한 임업엘리트는 영림 기능인과 전문경영 기술인으로 구분한다. 임업노동자들이란 전문경영인들이 세운 계획과 설계에 따라 기능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산지라는 공장에서 목재와 서비스 제품(수원함양, 산림휴양, 관광풍치 등)을 생산하는 기술자들로서 목재와 서비스 제품을 고급화시키는 주역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경영다운 경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미래 임업의 경제성과 환경보전 가치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부와 산주들의 자금투자로 미미한 상태의 임업에 고용되고 있는 인력이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세계적인 임업국의 하나인 서독의 경우는 100ha당 1인의 전문산림작업원이 있고, 약 500ha당 1인의 전문경영 기술자들이 고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으로 보아 서독과 같은 고용을 할수는 없다 하더라도 산림작업의 량을 보면 최소한 400ha당 1인의 작업원과 2,000ha당 1인의 전문경영 기술자가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와 같은 일을 하기위해 전국적으로 16,000여명의 전문 작업원과 3,500여명의 전문경영 기술자가 고용 되어야 한다.

#### 4. 전문경영기술인의 선발과 관리

전문경영기술인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인력들은 영림서 직원, 산림조합지도원, 시군의 산림과 직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전문경영기술인으로서 기능을 갖고 있으나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이 발달되지 않고 있으며 경영기술자로서의 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산림녹화 사업의 주역들이었으나 녹화와 더불어 경영기술자로서의 훈련과 경험을 갖출 기회가 없어 결과적으로는 경영기술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이다.

결과적으로 산림녹화 시대의 인력으로는 산림자원화와 임업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현재의 경영조직으로는 각자가 맡을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산림의 과학적 합리적 경영을 통해 산지자원의 고급화와 산림기능의 최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의 재편성과 동시에 경영담당 기술자들의 능력제고를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

바람직한 방향은 국사유림에 관계없이 1~20,000ha 단위를 기업적 또는 국가적 경영단위로 설정하고 이의 세부조직으로는 2,000ha당 1인의 경영기술자와 5~10인의 영림기능인들을 비치하여 책임관리를 시키는 일이다. 영림서의 경우는 현존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개편하고 사유림의 경우는 협업체와 같은 조직으로 확대하는 방향에서 책임 경영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한다.

전문경영기술인들은 최대한의 자격을 갖춘자로서 전국에 있는 임업교육기관, 전문경영인, 전문기술자들로부터 일정기간 실시훈련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이들의 양성방법을 보다 구체화 시킨다면 중앙교육 기관에서 하여왔던 획일적이며 이론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실기 훈련기관(전국에 3-5개소 시설)을 중심으로 실기훈련을 시키고 전국에 있는 분야별 전문가에게 교관기능을 주어 이들의 현장을 방문하여 방문훈련을 받도록하며, 선진관리소와 출장소, 협업체, 군산림과와 산림조합등에서 선진된 기술을 배우도록 고급질의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훈련 기능을 부

여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경영기술인들은 임업인들의 꽃이요, 꿈이다. 이들이 우수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면 한국의 산림과 임업은 밝아올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책임과 창조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의 발전과 직업환경의 개선없이 는 우수엘리트의 확보는 어렵게 된다.

### 5. 영림기능인의 관리

아무리 좋은 뜻과 계획을 사무실에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영림기능 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들의 정 의롭고 숙달되며 산림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때 우리의 숲은 제2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을것이다.

산림녹화는 국민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졌으나 산지자원화와 자원의 고급화는 영림기능인의 지식과 기술에 의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숲은 한번 잘 못다루면 숲을 새로 갱신할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지식이 없는 자에게 숲을 맡기게되면 돈만 투입될뿐 작업결과가 없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

따라서 영림기능인들은 산하주민 또는출근 가능지역에 사는 건강한 자를 선발하여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키어 담당구역에 배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들의 직장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일생동안 머무르면서 담당 산림에서 작업을 하게되므로 자기가 심은 나무를 자기가 가꾸고 간별하게 된다. 남이 심은 나무를 가꾸는것 보다는 보다 더 애정을 갖고 숲을 가꾸게 됨은 물론이다.

영림기능인의 일터는 자기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역에 마련하여 주므로서 산림에서 작업이 없을 경우 농업이나 기타가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들 기술자들이 안정되게 지역을 지키면서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년중 작업물량이 배정되도록 강구하지 않으면 숙달된 기술 인력들이 보다좋은 직장을 찾아 전전하게 되며 이로인해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산림부국의 꿈도 깨어지게 된다.

이와같은 직업환경을 마련해 주고 우수한 농산촌 청장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직업훈련을 시킨다면 이들은 진정한 의미의 산림부국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관리기술인들로서 긍지를 갖고 살게될 것이다.

### 6. 한국산림의 미래

임업은 미래의 한국산업이고 산림은 미래의 한국인의 생활터전이 될 것이다. 이는 산업사회의 발달로 인해 자연상품인 목재와의 생활을 가까이하게 되고 문명의 오염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림을 찾아들게 됨은 선진산업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산업사회로부터 울려나오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부강한 국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한 임업엘리트들이 우리의 숲속에서 미래목을 선발 관리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고 긍지와 사명감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수한 임업엘리트들이 숲속을 일터로 삼기위해 몰려올 때 산림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